



서울관광재단이 자치구와 손잡고 개발한 '서울 멍멍이 산책코스' 중 마포구의 하늘공원 메타세콰이아길은 3.9km 2시간 코스로 월드컵공원 주차장(남남의 장소)에서 출발한다. 메타세콰이아 길에 있는 핑크몰리에서 반려견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 사진제공 | 서울관광재단

## 도심 속 멍멍이 힐링투어, 여기 어때요



길기연 대표

반려동물 동반여행은 관광의 새로운 주류 트렌드다. 이제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나 유튜브에서 반려동물과 떠난 여행 사진이나 영상을 만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누리는 여행의 자유로운 모습은 우리는 사람에게 만족감을 주지만, 보는 이에게도 '대리만족'의 행복감을 제공한다. 반려동물 가족 1500만 시대의 일상적인 모습이다. 서울관광재단(길기연 대표이사)이 관광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반려동물 동반여행에 주목하는 것도 이런 흐름 때문이다.

### ●서울 10집 중 2집은 반려가구

KB금융그룹의 '2021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반려가구는 604만 가구, 반려인은 1448만 명이다. 또한 서울시 동물보호과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등록반려동물은 48만1732마리에 달한다. 서울의 거주가구 기준으로는 약 10집 중 2집이 반려동물과 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펫코노미'로 불리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여행산업에서도 반려동물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반려동물 동반투숙 객실을 갖춘 숙박시설이 드물었지만, 이제는 상당수의 호텔이나 리조트가 동반투숙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일부 리조트나 호텔은 객실 외에 전용 놀이시설이나 레스토랑도 갖추고 있고, 반려인을 겨냥한 맞춤 이벤트도 빈번하다.

반려동물이 여행이나 관광산업의 변수가 아닌 사업이나 콘텐츠를 기획, 추진할 때 반드시 고려할 상수가 된 것이다.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취임 직후 지난해 10월 스포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반려문화가 다양하고 역사가 깊은 외국에는 영국의 도그쇼처럼 관련 행사가 훌륭한 관광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우리도 애견인이나 애묘인들이 찾을 수 있는 동반관광이나 투어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구별로 특화해서 여행과 관광콘텐츠 외에 수의사나 관련업체가 모인 펫카운티 같은 것을 육성할 수도 있다"는 아이디어를 밝히기도 했다.

자치구 손잡고 반려견 산책코스 7곳 조성  
안전한 길·애견 놀이터·주차공간 등 확보  
관광의 새 트렌드, 미래 먹거리로 떠올라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 개발 힘 쓸 것"



광진구 아차산성 하이킹코스, 1.5km 1시간 코스로 아차산 생태공원, 아차산성, 낙타고개 등을 거친다.

반려동물 동반여행 콘텐츠는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시대에 재개될 인바운드 관광(해외에서 국내로 여행) 시장에서도 한국을 여행지로 선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로 해외 여러 도시들은 수년전부터 반려동물 동반여행지로서의 매력을 적극 마케팅하고 있다. 여행사이트 스카이스캐너의 '반려동물과 함께 떠나기 좋은 여행지'를 보면 일본의 오키나와 태국 푸켓, 미국 샌프란시스코, 프랑스 파리, 뉴질랜드 오클랜드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 도시들은 공통적으로 반려동물 동반 숙소가 다양하고, 함께 뛰어놀거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레스토랑이나 대중교통도 반려동물 출입을 허가하는 친화정책을 펴고 있다.

### ●자치구와 반려견 산책코스 개발 협력

서울관광재단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서울을 찾는 국내의 반려인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치구와 함께 '서울 멍멍이 산책코스'라는 이름으로 반려견 산책코스를 개발했다. 현재 조성된 '서울 멍멍이 산책코스'는 총 7개다. 마포구 하늘공원 메타세콰이아길을 비롯해 도봉구 초안산 도봉 둘레길, 동작구 보양리대공원 둘레길, 구로구 안양천 산책로, 영등포구 안양천 산책로, 광진구 아차산성 하이킹 코스, 동대문구 가을단풍길(중랑제방길) 등이다.

코스는 인근의 주차장소 확보, 반려견에 해가 되지 않는 지면구간 유무, 근거리의 반려견 놀이터, 많은 인파가 몰리지 않는 지역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특히 코스 인근에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를 갖추어 산책과 함께 반려견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하는 것을 중요시했다.

'서울 멍멍이 산책코스'가 비반려인도 함께 다니는 길인만큼 목줄 착용과 배변봉투 지참 등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지켜야 할 '펫티켓'을 알리는 데도 신경을 쓰고 있다. 박진형 서울관광재단 관광서비스팀장은 "서울의 반려가구가 크게 늘었지만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은 부족한 수준"이라며 "이번 '서울 멍멍이 산책코스'를 시작으로 반려인을 위한 서울관광 콘텐츠를 더욱 많이 개발할 예정이다"고 소개했다.



뷰티·스파 부문의 웰니스 관광지 강원도 양양 설해원. 사진제공 | 한국관광공사

### 4가지 테마 '추천 웰니스 관광지' 9곳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뷰티·스파, 자연·숲치유, 한방, 힐링·명상 등 4가지 테마의 '추천 웰니스 관광지' 9개소를 신규 선정했다.

온천과 테라피의 뷰티·스파 웰니스 관광지는 보양은천으로 지정수 냉온욕 스파 힐링시설을 갖춘 동해의 '동해보양온천컨벤션호텔', 면역공학 디톡스 프로그램 및 소나무·해풍 산책길, 개인맞춤형 스파를 운영하는 양양의 '설해원', 개인별 진단을 통한 맞춤형 피부·헤드스파인 대구 '에스투뷰티 뷰라운지' 등이 선정됐다.

자연·숲치유 관광지로는 천혜의 산림환경에서 건강상태 측정 및 숲체험을 즐길 수 있는 거창 '거창항노화 힐링랜드', 숲해설을 통한 원시 생태숲 체험과 족욕을 할 수 있는 제주 '환상숲꽃지알공원'이 뽑혔다.

한방 분야는 서울 강남구 '이문원한의원'이 선정됐다. 한방치료뿐만 아니라 두피 면역증강 프로그램, 아로마, 근육 마사지 등의 한방 웰니스 여행을 즐길 수 있다.

힐링·명상 분야는 10만㎡ 도심 속 자연에서 요가와 명상을 즐기는 서울 강서구 '메이펠드호텔', 태권도를 통한 힐링과 명상을 하는 무주의 '태권도원 상징지구', 요가 및 명상 프로그램과 비건 브런치를 제공하는 제주의 '제주901'이 선정됐다.

2017년부터 시작한 웰니스 관광지는 올해 신규 9개소를 포함해 모두 59곳이다. 김재범 기자

### 글로벌 호텔 IHG '보코서울강남' 내일 오픈

글로벌 호텔체인 IHG의 한국 첫 보코 브랜드인 '보코서울강남'이 23일 공식 오픈한다. 2018년 IHG에서 론칭한 브랜드인 보코(voco)는 독자적이고 자유분방한 콘셉트를 지향한다. 서울 신사동에 위치한 보코서울강남은 총 151실 규모다.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 '아마리오', 최신 AV시스템과 LED 스크린을 갖춘 그랜드 볼룸과 미팅룸이 있다. 객실은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비롯한 14개의 스위트, 디럭스와 프리미어 등으로 구성했다. 스위트 객실에는 커스텀 키친을 갖추었다. 각종마다 공용 주방이 있어 캐주얼한 다이닝을 즐길 수 있다. 장기투숙객과 비즈니스 여행객을 위한 셀프 세탁실도 마련했다. 일부 객실에는 미니풀과 히노키탕도 있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4월 22일 (금) 음력: 3월 22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b>행운색: 흰색</b> <b>길방: 서</b>	<b>행운색: 적색</b> <b>길방: 남</b>	<b>행운색: 검정</b> <b>길방: 북</b>	<b>행운색: 검정</b> <b>길방: 북</b>	<b>행운색: 적색</b> <b>길방: 남</b>	<b>행운색: 청색</b> <b>길방: 동</b>
상대방과 완전히 의견과 방향을 달리하는 운기이다. 이럴 때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운다면 대립은 격렬해지고 결과가 나빠진다. 지금의 기운은 쇠하여 있다. 헛된 고집을 버리고 친애와 협조에 마음을 쓸 일이다. 도전적인 기운을 가진다.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함이 필요한 때다. 금전적인 여건도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아가라. 분경이 있다면 이쪽이 유리해진다. 소가 뱀을 만나는 날이다. 학업, 연구, 문화,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날이다.	문명이 과도하게 진보하면 퇴폐의 미를 좋아하게 되어 마침내 소박한 생명력을 잃고 만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외면만을 치장하고 내면적인 깊이를 잃고 만다. 매사 외견상의 화려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샘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가늘프고 의지할 것이 못되나 나중에 강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올바르게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둠과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경계망을 삼가하라.	어떤 일에서 다른 일로 바뀌어지는 운기의 날이다. 그러나 개혁을 급격히 행하기는 어려우며 서두르면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계속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얻어질 것이다. 거레에서 큰 건수가 들어온다.	참고에 곡물이 산과 같이 쌓여 있는 운기이다. 대방을 품은 자는 먼저 힘을 쌓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비교적 안정된 때이므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의 계획을 세우고 착수하라.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b>행운색: 청색</b> <b>길방: 동</b>	<b>행운색: 적색</b> <b>길방: 남</b>	<b>행운색: 검정</b> <b>길방: 북</b>	<b>행운색: 노랑</b> <b>길방: 중앙</b>	<b>행운색: 적색</b> <b>길방: 남</b>	<b>행운색: 흰색</b> <b>길방: 서</b>
금전적인 이득과 함께 이성이나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자신의 명예에 관한 행동이나 금전관계도 원활하나 과감한 행동이나 처세는 심사숙고 해야 한다. 서류상의 문제는 정확한 확인 및 보관이 필요하다. 망신수가 따를 수 있다.	한낮의 암흑처럼 절정에 달해 있는 곳에서부터 서서히 쇠퇴의 그늘이 지므로 겉은 화려하고 활기가 넘치지만 내부에는 격정이나 갈등, 비밀 등이 내포되어 있는 때이다. 이런 때는 매사 조지일편의 자세로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태연하게 움직이지 않는 산의 운기이다. 심사숙고해서 경계망을 삼가야 할 때다. 경솔히 나아가면 산에 산이 중첩하는 난관에 부딪힌다. 계획은 곧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기를 기다리며 심신을 안정시키는 것이 선배와 상의하라.	자신의 콤플렉스에 빠지기 쉬우며 능력의 한계로 인한 피로감이 쌓이기 쉬울 때이다. 그러나 점차 지금까지의 상태에서 벗어나 활동의 범위를 넓혀감에 따라 뜻이 관철되는 계기가 조성된다. 돈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라 재미 본다.	사람의 턱과 같은 운기의 날이다. 사람은 턱을 움직이면서 음식을 씹어 먹고 육신을 기른다. 이처럼 턱은 만물을 기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병이나 화또한 입을 통해 들어오고 나간다. 구설수나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을 주의하라.	몸과 마음이 굳어지면서도 위험이 앞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자중해야 한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강에 뛰어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망용이다. 힘을 기르면서 기다리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주장을 좀 꺾고 상대방과 화해하라.

오늘의 날씨			22일(금)		
서울 60/60	인천 60/60	춘천 60/60	강릉 20/20	대전 20/30	전주 20/30
13 19	12 16	10 21	15 24	11 22	12 24
광주 10/10	대구 0/20	부산 0/0	11 25	10 29	12 21
창원 0/0	제주 0/1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10 23	13 25	최저 최고기온 °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10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임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본·투고 02-361-1616 sol@donga.com